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지키십시오

9월 16일

2018 기독교교육진흥주일 자료집



오직 말씀으로만 Sola Scriptura!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CONTENTS

목회서신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새 날을 열어갑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철	3
인사말씀	제 85회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을 맞아.. 교육국 총무 김낙환	6
설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경기연회 수원장안지방 복수원교회 담임목사 이성우	8
주제글	오직 말씀으로만(Sola Scriptura)! 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교수 오성주	13
예배자료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는” 85주년 기독교교육 진흥주일 예배 감리교신학대학교 박사과정수로 유명화	17
교육자료	예수님의 이야기와 교육 활동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학습센터·산학협력단 연구원 교사양성센터 강사 양성진	23
	말씀으로 만나는 교육, 하브루타(Havruta) 호서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황병준	27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새 날을 열어갑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학교 교육에 힘 쓰는 교사들 위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리교회는 조선말 고종황제로부터 교육과 의료사업의 운허를 받아 배재학당을 시작으로 이화학당, 평양 광성학교, 정의여학교, 영명학교, 인천 송도학원들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마다 교회학교(주일학교)를 시작함으로 민족정신함양과 신앙교육을 병행함으로 민족성과 믿음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민족의 지도자를 생산해냈습니다.

작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린이와 청소년뿐 아니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수 년 전부터 이야길 하지만 뽕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난 2017년 통계에 의하면 학생은 287,139명 교사 36,074명으로 통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통계표와 비교하여 볼 때 아동부 학생은 32,178명이 줄었고, 교사 역시 12,380명이 줄었습니다. 학생 수보다 교사 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무관심, 교육환경의 열악, 교사들의 바쁨 등이 주요 원인일 것입니다. 그 원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1) 부모세대들은 감리교인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감리교인 이라는 자부심을 되찾아야합니다.

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교리 중심의 교육이 돼야합니다. 모든 교회에서는 감리회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감리교회를 빛낸 위인들을 발굴하여 나누고, 가르쳐야 합

니다.

도서출판 KMC에서는 ‘한국감리교회 역사’,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 ‘감리교회를 빛낸 평신도’라는 책들을 통하여 정체성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을 교회에서 나눔으로 감리교회 역사의 뿌리를 찾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2)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사들 확충에 힘써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교사들을 양육하는 일에 지방회와 교회가 힘써야겠습니다. 교사교육을 향한 투자가 바로 다음세대 부흥의 척도입니다.

교사로서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성령 체험이 있어야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럴 때, 한 생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다 할 수 있는 교사로 세워질 것입니다.

3) 말씀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교회학교의 위기는 프로그램 중심의 교육 때문에 찾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개체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했습니다. 교회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전통적인 분반 공부를 부활시켜 어린 영혼을 붙들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혼에 집중하며, 예수 생명을 나누려 해야 합니다. 그런데 흥미 위주 교육이 되다 보니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입시라는 몰록신에 자녀를 먹잇감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말씀 없는 삶을 살다 보니 허탈, 공허, 불안,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이겨내지를 못하고 맙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 체험인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교회는 다가올 내일을 위하여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비전과 사명감을 불어넣으며, 말씀 중심의 체험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야겠습니다.

그들은 우리 감리교회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그 미래와 희망을 키워내는 교회학교로 세워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다가올 내일을 위하여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비전과 사명감을 불어넣으며, 말씀 중심의 체험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야겠습니다.
그들은 우리 감리교회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더 힘을 냅시다.

나약한 거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군사인 소년 다윗을 세우고 기르는 일에 힘쓰는 모든 감리교회와 교사들에게 주님의 뜨거운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제 85회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을 맞아...

한반도 전역을 내리찍던 불볱더위가 물러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선선한 바람으로 가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만물을 돌보고 계심을 목상하게 됩니다.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맞아 올 해처럼 뜨거운 더위에도 믿음의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땀과 열정을 아끼지 않고 애쓰신 전국의 감리교회 기독교 교육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은 ‘오직 말씀으로만’이란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교육하는 자가 교육하고 싶은 대상에게 교육하고 싶은 내용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을 우리는 교과서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교육의 교과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서에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시고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루터와 웨슬리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교회가 오늘날과 같이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학교 교회교육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목회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교육 지도자 여러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출산, 여가생활, 반기독교, 지식위주의 학교교육 등 그 이유는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어둠속에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하며 다시 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물으심에 응답하여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지어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길 요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사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붙들고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며 열매를 주실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885년 위태하고 소망이 없던 이 땅에 발을 디딘 아펜젤러는 배고픈 아이들에게 학교를 세워 하나님 말씀과 희망을 전했고 그것이 한국감리교회 교회학교의 처음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모인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지만 아펜젤러가 전하는 말씀과 사랑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신앙인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자라났습니다.

오늘 아이들은 아주 바빠 보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졸린 눈으로 겨우 예배의 자리에 앉은 아이, 예배가 끝나면 당장이라도 뛰어나가려는 듯 엉덩이를 들썩이는 아이, 손에 쥔 핸드폰의 유혹과 싸우다 지는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쁘다고,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계속 거를 수 없듯이 오늘 교회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의 밥을 지어 먹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이 신비에 대한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롬10:17). 이 거룩한 일에 부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 디모데후서 3 : 13 ~ 17

우리 교회에서 산업도로 남쪽방향으로 내려가다가 보면 ‘웨딩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노인요양병원’으로 내부수리 공사를 한답니다. 결혼식장을 요양병원으로 바꾼다고 하니 드는 생각이 많습니다. 웨딩홀은 젊은이들이 결혼식을 하는 장소이고, 요양병원은 연세 있는 분들을 치료하는 시설입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웨딩홀은 사양사업이 되었고, 요양병원이 유망사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을 요양시설로 바꾼다는 것은 상징성이 충분합니다.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않으려는 세대에 예식장보다는 어르신들을 위한 치료시설이나 보호시설이 노령화 시대에 사업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조한 출산율, 초고령화 사회, 인구 절벽 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2018년 합계 출산율 1.0명 선이 붕괴되고, 4년 내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몇 년 내로, 어린이집, 유치원의 30%는 문을 닫고, 영유아 관련 산업이 쪼그라들면서 실업자가 대량 양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구추이는 개인사업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영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초, 중, 고, 대학교의 신입생 문제는 이미 발등의 불이 되었습니다. 교회교육 역시 이미 그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이기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교육을 위하여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어찌하라고 합니까? 13절 말씀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3장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이르러”(1)라고 시작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때는 왔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가 속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 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고, 사기꾼에게 사기를 쳐 먹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정의 해체라는 말이 전혀 낯설지 않은 시대에 가정예배는 꿈을 꿀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참여하는 가정예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림짐작입니다만, 개인이나 연세 있는 부부가 드리는 1세대만의 가정예배는 있지만, 부모와 자녀 등 2세대가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조차 다음세대의 신앙 교육은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자녀가 예배에 출석하는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일에도 학원에 나가려는 자녀에게 먼저 예배출석을 권장하는 부모가 줄어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배당에서 행해지는 교육의 내용입니다. 부모가 성인 예배드리는 시간 안에서 예배와 공과와 활동을 소화하는 초월적 교육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텔레비전 시청 시간의 몇 십 분의 일만큼만 말씀을 듣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새로운 가치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진화론적인 사고로 생활하는데, 교회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만 창조론적인 생각을 스쳐지나가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발은 세상을 딛고 한 발은 교회를 딛고 있다는 표현도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는 조금씩 결눈질을 하면서 세상으로의 해방을 꿈꾸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의 다음세대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마디로, 너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니, 네가 배운 대로 살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이는 사람들을 속여 먹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 자신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15a). 그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성경을 배웠습니다(딤후 1:5).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는지, 그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계승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성경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 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어머니 유니게는 친정어머니인 로이스와 함께 그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울 수 없다면 어머니에게 배워도 됩니다. 가족에게 배울 수 없다면 이웃에게 배워도 됩니다. 누구에게 배웠느냐 하는 것보다 성경을 배웠다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구약성경을 배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모두 배우고 믿게 된 셈입니다. 어려서부터 구약의 말씀을 배우며 자랐기에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 이야기를 듣게 되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사람은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 그릇을 채우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보호와 양육 아래 있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하여 강제로 그리스도인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호자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수 있게(계 3:20)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고 명령합니다.

부모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녀를 부르시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수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데 사용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데 사용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디모데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가 들은 바를 부탁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는 희망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희망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희망입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꿈도 꾸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 자체의 가치와 유익함 때문입니다.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더욱이 17절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경을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듣고 배우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온전하게는 ‘지금 여기에 완벽하게 꼭 맞는’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성경대로 살 수 없는 세상이라기에, 이 세상의 풍랑이 모질고 험하기에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르쳐야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래서 서글픈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립니다. 교회교육을 잘하기로 소문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라지요.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한 아이에게 “너,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린 줄 아니?”하고 물었더니, 그 아이는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라고 했다지요. 어린이부를 담당

하는 교사에게 “아이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안 그랬대요.” 하였더니, 교사는 “그 아이는 착한 아이라 절대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아이가 아닙니다.”고 하였다지요. 교회의 재무를 담당하는 장로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더니, “염려 마십시오! 교회 재정에서 다 처리하겠습니다!”고 했다지요! 이 이야기는, 1960년대 당시의 미국의 교회교육을 풍자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교회에서조차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착한 사람 만드는 윤리교육에 머물렀다는 지적입니다. 좋은 시설과 재정만으로 교회교육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성경에서 떠났다는 질책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조차 성경을 놓아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름‘성경’학교를 한다며, 여름‘놀이’학교나, 여름‘울동’학교에서 그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주입식 교육으로 성경을 암기하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경험하게 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바르게 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의로 교육하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린이부에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이부에 보내는 것으로 신앙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고, 자녀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자라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칫, 자녀가 스스로 결정할 나이가 되어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 너무 늦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교회교육도 변질되었습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현실을 보노라면, 세상의 물결에 너무 멀리 떠내려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다시 용기를 갖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교육을 위하여, 다음세대의 신앙을 위하여 다시 기도할 때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말씀으로만(Sola Scriptura)!

– 2018년 기독교교육진흥주간에 붙이는 글

오늘 날 자본주의와 과학기술혁명은 사람을 풍요롭고 사치스러운 소비주의 문화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리고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쾌락주의에 물든 세속물결에 휩쓸려 내면의 깊은 성찰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빼앗아 가버리는 세상입니다. 결국 사람들을 비인격화시켜 가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기계화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참 자유와 자율성의 힘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간혀 노예화된 상태이거나 자폐적 성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맘몬이즘과 맞물린 과학신봉주의는 탈신화화와 탈종교화에 빠뜨리고 무한한 인간의 가능성에 도취되게 만들어 무신론적 삶과 개인주의로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현실을 비판적 사고로 인식하지 못한 채 불확실한 미래를 보며 불안과 두려움의 장벽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고립되거나 숨겨져 있는 외로운 자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교회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남으로 교회학교는 젊은 교사들이 줄어들고, 노령화된 교회는 장년층 교사들마저 감소되어 지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 청년 실업자의 심각한 문제는 결혼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저 출산 문제는 학령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요인으로 교회는 전체적으로 교인수가 감소하면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그 위기는 외적 숫자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부재입니다. 1980년대 많은 교회들이 성경공부를 통한 제자화 훈련의 물결은 1990년대까지 부흥을 가져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전도와 선교’라는 명목으로 교세를 확대해 가면서 프로그램과 교회경영에 강조를 하게 되었고, 결국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인수가 감소하게 됨으로 교회는 경영난에 봉착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위기는 2010년대 이후 교회학교 위기로 이어져 ‘영아에서 노인’까지라는 교회의 전 생애주기가 순환되지 못하고 그 연결고리가 끊어짐으로 더욱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학교는 성경공부 중심의 분반공부가 사라지고 예배와 설교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교회학교 인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위기에 직면하면서 다시 회복하려는 시도로 많

은 흥미 중심의 전도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성경공부를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행사 중심의 교회학교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속에서 2018년도 기독교교육진흥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학교가 회복하기 위한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공동체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교회학교를 다시 부흥시키는 길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제자들을 양육하는 교육 공동체로 전환시키는 일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역동적인 교회학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으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져 다시 생명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 유대-기독교 공동체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며 분명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갖추게 될 때 신앙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教會)란 “가르치는 모임”이란 뜻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모임일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란 유대교의 전통이며,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Sola Scriptura”(오직 말씀으로만)이라는 개신교 전통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짐으로 점점 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믿음과 말씀이 약해질 때 세상에 휩싸여 넘어지기 쉽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에서 교사란 목사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행전 8장26절 이하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빌립을 만나서 고백하며 청하는 말처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신자본주의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할 지 갈 길을 찾지 못하며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도해줄 교사를 찾고 있으나 빌립과 같은 참된 교사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을 만난 내시처럼 현대인은 새로운 성경말씀을 가르쳐줄 지도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에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령에 이끌리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때 성령에 이끌리는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사야 53장7절 이하의 말씀을 가르쳐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여 내시는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기독교교육진흥 주간을 맞이하여 새롭게 다시 교회학교를 부흥시키기 위해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사로서 말씀을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교사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과 같이 성령에 이끌리는 교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때 성령에 이끌리는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교사의 위기는 가르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짜내는 기술을 가진 교사가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교사가 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확실한 소명과 함께 분명한 말씀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교사훈련 프로그램이란 학생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교사이며 그 체험한 하나님의 증거들을 학생들에게 전하며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교회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에서 프로그램 활동이 흥미와 재미를 잃었기 때문이라기보다 학생들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도록 도와준다면 신비한 하나님에 대해 교사로부터 더 알고 싶은 호기심과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들의 만남과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비한 하나님과 학생과의 친밀한 만남과 관계 형성을 위한 말씀과 기도생활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과의 만남과 관계를 통한 교회교육이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짜 공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말씀만이 현대인을 죄의 쇠사슬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교육 진흥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며 생명력 있는 교회학교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Sola Scriptura)!

동체 속에서 외로움과 공허함 때문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강하게 부정하고 타자를 거부하며 경계하는 현대인들은 강한 위협과 억압을 받고 있는 심리적 상태임을 말해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말씀만이 현대인을 죄의 쇠사슬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교육 진흥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며 생명력 있는 교회학교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Sola Scriptura)!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는” 85주년 기독교교육 진흥주일 예배

거부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통해 그리스도께 마음을 돌이킨 자들은 복되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모든 삶-결혼, 가족, 정신, 지갑, 일정, 작업, 여가, 투쟁, 정치-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부르심을 요청 받는다. 이 일은 끝없는 과정이며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시작한 자들이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빨간 카펫 위를 행렬하는 화려한 삶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기대했지만 도리어 죽음의 길이고, 부유함을 기대하기 보다는 더욱 나누어 주고 베풀어 버려야 하는 길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가게 된다. 놀라운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 재물을 드릴 때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비로소 나타난다. 처음 교회의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선포하다가 순교자가 되었고, 중세 자발적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수도자가 되었고,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굴복하는 복음주의자가 되었다. 역사의 리듬 속에서 85년 전에 한국교회에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진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 우리는 기독교교육 진흥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신앙을 배우는 자가 되면서 동시에 서로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신앙 교육은 어떤 특정한 자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사명임을 기억하자.

십자가를 지는 자 만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로마서 6:5)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진실하고 선하며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최고의 배움은 바로 공동예배를 드리는 때이다. 교회교육의 가장 정수는 바로 예배하는 그 시간, 그 곳에서 일어난다. 예배는 아바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성자 예수의 사랑을 통해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능력에 참여하는 놀라운 변형의 자리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창조세계에 대한 관계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부르심과 응답이 있는 예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과 사명의 배움이 자라난다. 예배의

목적이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배움이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슈메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세상’ 안으로 감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고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예배라고 말한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주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신앙의 교사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의 증언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018년 기독교교육 진흥주일 85번째 예배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안에 있는 참교사들을 기억하고 축복하는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보자. 그리고 우리도 또한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도와서 천상에서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꿈꾸는 주일이 되게 하자.

기독교교육 진흥 주일 85주년 기념예배

1. 예배드리기 전 준비

*자신에게 신앙을 가르쳐 준 사람들의 이름을 적을 종이(색종이 크기, 하트 모양)와 자신이 신앙을 전해 줄 사람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주고 미리 이름을 적어 예배 전에 준비하게 한다. 예배 후 이름을 모아 “우리에게 교사되어 준 사람들”과 “교사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전시하여 9월 한 달 동안 교회가 다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한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세대의 대표들(어린이와 부모, 어르신 부부, 학생, 청년, 장년 등)이 예배 시작 때 입장함으로써 모두가 가르치는 자이면서 배우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하자. 입장을 할 때 부모가 자녀를 무등을 태우고 가고, 입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외치면서 나아간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2. 예배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옴〉

예 배 집 레		담임 목사
* 입 장	<p>목사님-십자가를 든 예배 위원-성경말씀을 든 위원-믿음의 세대들-찬양대의 순서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입장한다. 입장하는 동안 반주는 은은하게 한다.</p>	집레자와 말은이들
* 예 배 부 름	<p>인도자: 은혜로우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경이롭게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것도 바라볼 수 없을 때 우리를 뛰어 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의 외침을 통해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원하시고 끊임없는 사랑의 주님, 우리의 참된 교사가 되시어 지혜와 자유, 떨림과 용기, 의심을 넘어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온 세상을 향한 평화, 정의, 사랑 그리고 소망이 지혜와 진리 가운데 높임을 받기 원하며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p> <p>회 중: 할렐루야 아멘!</p>	집 레 자
* 경 배 찬 송	만입이 내게 있으면(23장)	다 함 께
* 죄 의 고 백		다 함 께
* 용서의 말씀		집 레 자

* 교 독

(112번
교회교육
주일)

인도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회 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인도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회 중: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인도자: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회 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인도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회 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함 계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지으시고 헤아릴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 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로 이어주시고 죄에서 떠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형형색색의 사랑들을 우리의 몸에 지니어 주님의 사랑에 감싸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빛이 온 세상을 환하게 드러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 사랑들 앞에 온 세계가 모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육 부장

기도응답송

찬 양 대

〈 말씀의 선포 〉

- * 성서 봉독
 - 구약: 잠언 1:20~33
 - 신약: 마가복음 8:27~38
- * 마지막 복음서 봉독 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 회중: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 * 구약: 어린이 혹은 학생 대표
- * 신약: 장년 혹은 노년 대표

찬 송 찬 양 대

설 교 “십자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 담임 목사

〈 감사와 응답 〉

합 십 기도 다 함 께

신 앙 고 백 다 함 께

* 찬송과 봉헌 나의 생명 드리니(213장) 다 함 께

봉 헌 및 목 회 기 도 집 례 자

오늘 헌금 시간은 역사적으로 귀한 유산이 있는 순서를 기억하며 구별된 봉헌을 드립니다.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은 1933년에 주일학교진흥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앙교육의 진흥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1전(錢)씩 헌금했던 전통이 우리 기독교대한 감리교회에 있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다같이 봉헌하겠습니다. (*이 헌금이 기독교교육을 위하여 어떻게 쓰였는지 교인들에게 이후 광고를 통해 알려준다.)

교회 교육
진흥 기념
감사 나눔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준 신앙의 교사들의 이름을 축복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다. 회중은 두 장의 하트 종이를 가슴에 모아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선포한다. 000에는 자신
이 적은 두 사람의 이름을 넣어 말한다.

다 함 계

“저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알고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해 준 000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
다. 이제 제가 000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힘써 섬기겠습니다.”

성찬 <예식에 따름>

<세상으로 나아감>

교 회 소 식

집 레 자

* 찬 송

나 말은 본분은(595장)

* 파송의 말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몸과 마음에 덧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웃
을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를 마땅히 지고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십시오. 마땅히 서로에게 살아 계신 그리스도
의 제자가 되도록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교육에 힘쓰는 여러분
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 축 도

담임목사

* 축 복 송

찬 양 대

* 후 주

반 주 자

* 표시가 있는 곳은 일어난다.

예수님의 이야기와 교육 활동

1. 하나님의 구원이 담긴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 말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위대한 인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치유 이야기, 비유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고전동화가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와 아주 동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며, 그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와 함께 만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연결시키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근거하여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문화와 시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그토록 고민하던 인생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점차 우리의 이야기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하는지, 우리의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우리의 이야기 안에 예수님의 선명한 이야기가 발자국처럼 남겨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2.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첫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화학적 첨가도 하지 않은 항아리 속의 물이 전혀 다른 성분의 물질로 바뀝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색깔, 향, 맛, 성분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는 그 사건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

다. 아무런 맛도 향도 색도 없는 물이 예수님의 능력에 접촉되자 진한 맛과 독특한 향, 그리고 붉은 빛깔을 띠는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이 이뤄진다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만남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만남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색, 맛, 향,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는 존재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제자와의 만남, 병든 자와의 만남, 죄인과의 만남, 억눌린 자와의 만남, 진리를 찾는 자와의 만남, 고통 중에 있는 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에 '존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쓰도록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3. 우리의 이야기를 써 가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야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야기꾼(storyteller), 이야기(story), 경청자(listener)입니다. 이야기꾼은 이야기를 경청자에게 전합니다. 경청자는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며,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경청자는 새로운 이야기꾼이 되어서 자신의 해석에 근거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동일한 이야기(story)라고 할지라도 경청자의 관점과 이해에 따라서 새롭게 해석되며, 그 새로운 해석에 근거한 이야기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동일한 이야기이지만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며,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수단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새롭게 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언어로, 행동으로, 삶으로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주체로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근거하여 우리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뿐입니다. 그 때에 우리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욱 생동력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탐구하고, 이야기를 재구성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만드는 과정이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게 됩니다.

있을 것입니다.

4. 우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교육활동)

우리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함께 만나는 교육활동을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탐구하고, 이야기를 재구성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만드는 과정이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게 됩니다. (<https://m.blog.naver.com/yeong0625/221291348986> 다음의 네이버 블로그에 교육활동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 이야기의 듣기, 말하기 (story-listening)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께서는 부르시고,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는 존재(story-teller)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듣는 자(story-listener)들입니다.

교육활동

- (1) 5명에서 하나의 조를 이룹니다.
- (2) 탕자 이야기의 이미지 그림(탕자, 아버지, 큰아들, 하인, 돼지주인, 재산)을 준비합니다.
- (3) 5명의 조원이 탕자의 말씀을 읽고, 자신의 언어로서 그림의 이미지를 가지고, 다른 조원에게 돌아가면서 서로 전합니다.

2) 예수님의 이야기 탐구하기 (story-embracing)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깊게 묵상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인물이 되어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관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 담겨진 내용을 탐구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며, 이야기 속 인물들의 심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교육활동

- (1) 네이버블로그에서 설명한 게임(내 손에 저장!)을 통하여 한 명의 인물, 사물이 됩니다.
- (2) 서로 등장인물을 정하고 준비된 질문지를 나누어 갖습니다.
- (3) 등장인물의 입장이 되어서 질문지를 작성한다.
- (4) 다 작성하였다면 조원들과 함께 나눈다.

* 질문

- 1 - 당신은 누구입니까?
- 2 - 현재의 나는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 3 -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니까?
- 4 - 나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3) 예수님의 이야기 재구성하기 (story-remaking)

- 세 번째 단계는 성경 속의 인물이 되어서 이야기를 해석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지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교육활동

- (1) 네이버블로그에서 설명한 게임(프로듀스 8)을 진행합니다.
- (2) 게임을 통하여 모든 이미지를 가지고 탕자이야기를 자신의 입장에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 (3) 자신이 “등장인물로 변신”에서 정해진 등장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자신이 모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재구성합니다.
- (4) 재구성한 이야기를 조원에게 들려준다.
- (5) 특별히 마지막 활동은 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야기로 구성하도록 진행합니다.

말씀으로 만나는 교육, 하브루타(Havruta)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전통적 학습방법이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며 수많은 박해와 모진 핍박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바로 말씀과 신앙의 힘이였다. 본 장에서는 유대인의 전통적 학습방법인 하브루타를 활용한 말씀교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1. 하브루타 개념이해, 2. 하브루타의 구성요인, 3. 하브루타의 내용, 4. 하브루타의 원리, 5. 하브루타 말씀교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하브루타 개념

하브루타(havruta, חֲבֵרִים)의 어원은 ‘친구’, ‘짝’을 의미한다. 하브루타는 아람어에서 유래하였고, 히브리어로 친구라는 뜻을 가진 ‘하베르(חֵבֵר)’와 어원이 같다. 유대인들은 전통 교육기관인 예시바(yeshiva)에서 토라(תּוֹרָה)와 탈무드(תּלְמוּד)를 공부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2명이 서로가 짝을 지어 질문도 하고,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고 논쟁을 하는데, 하브루타는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하브루타 교육법은 질문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는 교육으로 획일화된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이끌어 내는 교육방식이다(Kent, 2010). 하브루타는 교사 없이 학생들이 서로 짝을 지어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텍스트를 놓고 서로가 논쟁하는 방식이다. 즉 친구를 통해 배우는 것이다(박종신, 2017, 99).

히브리어 ‘하베르(חֵבֵר)’의 어원은 ‘하브’다. 이 말의 뜻은 ‘은혜’, 또는 ‘신세’를 의미한다. 유대인의 세계에 있어서 친구란 서로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거나 배우는 관계를 의미한다. 유대인들은 하브루타를 말할 때 인용하는 말씀이 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잠27:17). 어떻게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가 있을까. 친구란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을 얻을 수도 있고,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관계로 유대인에게 친구란 신세를 지며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되돌려주는 그런 관계를 의미한다. 하브루타를 통하여 친구가 스승이 되어 깨닫게 하기도 하며, 진리에 깊이 도달하게 해주기도 함으로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다.

2. 하브루타의 내용

유대인의 하브루타 내용은 토라(תּוֹרָה)와 탈무드(תּוֹלְמוּד)였다. 토라(Torah)는 유대교의 율법으로 그 어원은 ‘야라’에서 유래되었다. ‘야라’는 ‘과녁을 뚫다’, ‘안내하다’, ‘정확히 지시한다.’ 뜻을 갖고 있다. 토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제비를 던지는 일과 관련이 되어 유대인들의 생활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게 교육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김보경, 2016, 81).

토라는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으로서 모세오경을 의미하는데, 타나크(תּוֹלְמוּד)와 탈무드(תּוֹנ)로 나눈다. 즉 성문토라와 구전토라로 나눈다. 타나크(Tanakh)는 모세 오경과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의 앞 글자를 모아 성문토라라고 한다(김보경, 2016, 81). 토라는 유대인에게 유대민족 존재의 기반과 역사를 보게 하는 교육의 현장이다. 유대인들은 토라를 어떤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생존하게 하는 힘으로 간주하며 유대인의 능력의 원천이고 삶의 지침서로 이해한다. 유대인들은 3살에 토라를 암송하기 시작하여 13살이 되는 10년 동안에 토라의 187장 5,845절의 말씀을 암송한다. 토라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613개의 계명을 실천한다(박종신, 2017, 115).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토라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이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희생제사에 대한 율법들에 집중이 되어 있다.

탈무드(Talmud)는 히브리어로 ‘교훈, 연구, 교의’라는 의미로 유대인들은 신앙과 생활 규범 양식을 가르치기 위하여 랍비들의 연구 그리고 토론을 걸쳐서 얻은 결론들을 시대 변화에 맞게 계발하고 적용하면서 탈무드를 기록하여 왔다. 탈무드는 미쉬나(מִשְׁנָה)와 게마라(גְּמָרָא)로 이루어져 있다. 미쉬나(Mishna)는 ‘가르치다’와 ‘반복하다’의 뜻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구전 성경을 쉽게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다. 게마라(Gemara)는 ‘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미쉬나에 주해와 해설을 한 것에 현자들이 주석을 달아서 완성한 것이다. 성문 율법(모세 오경)에 대한 해석(할라카 הלכה)들이 권위를 인정받으며 구전 율법이 되었고 구전 율법들을 편집한 것이 미쉬나(מִשְׁנָה)이며 이 미쉬나에 게마라(גְּמָרָא)를 덧붙여서 편집한 것이 바로 탈무드(תּוֹלְמוּד)이다(박종신, 2017, 257).

탈무드 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인품과 행동이 변화하는 인성교육에 있으며
창의적 성격의 변화와 성품 및 인격의 변화, 그리고 삶 전체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탈무드는 20권에 12,000 페이지로 대략 2,500,000개의 낱말로 기록되어있고 무게가 75킬로그램이 넘는 책이다. 종교적인 색채보다는 지혜의 서적 성격이 강하다. 유대인의 교과서이자 문학 작품이며 백과사전이다(정소임, 2014). 또한 수세기를 걸쳐 온 묵상과 논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파카드(Picard)는 탈무드를 “유대인의 수천 년 문화가 축적 된 것”이며 “유대인의 삶 자체”라고 하였다(정소임, 2014, 재인용). 탈무드는 유대인을 유대인으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였고, 유대인들의 전통과 문화를 지켜온 책이라 할 수 있다. 탈무드는 바벨론 유수 후 유대인의 정체성과 민족적 각성을 위해 만들기 시작하였고, 국가 재건 및 그들의 전통과 교리를 자손들에게 전수하려고 제작된 것이다. 탈무드 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인품과 행동이 변화하는 인성교육에 있으며 창의적 성격의 변화와 성품 및 인격의 변화, 그리고 삶 전체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3. 하브루타 7가지 원리

하브루타의 원리는 질문과 반박 그리고 증명이다. 하브루타의 기본 원리는 탈무드의 토론 요소에서 찾을 수 있다(전성수, 2017, 297). 첫째는 진술(Testimony)이다. 진술은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주어진 본문을 사실 있는 그대로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첫 단계이다.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 자신이 생각하고 이해한 본문의 내용을 서술해주는 단계이다. 둘째는 질문(Question)이다. 질문은 이야기를 한 사람의 정보를 듣고 파트너가 그것에 대해 세밀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을 한다. 두루뭉술한 질문은 하지 않아야 한다. 파트너가 주장한 내용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이나 해석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셋째는 대답(Reply)이다. 대답은 진술한 사람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한다. 자신이 진술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므로 진술한 사람은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차근차근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때 파트너가 질문한 내용만을 대답해준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주제로 빠질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넷째는 반박(Rebuttal)이다. 반박은 대답에 대해 반박 또는 반대 의견을 낸다. 이 과정은 싸우는 것 즉, 말다툼을 하는 과정으로 날카로운 반박이면 좋다. 이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파트너끼리 감정을 조절하고 인신비방은 금물이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과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한다(박종신, 2017, 342). 다섯째는 증거(Evidence)이다. 증거는 원래 말한 사람이 자신의 증거에 대해 논리적으로 증거를 대고 증명한다. 이 단계에서는 진술자가 증거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총동원하여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통계자료, 설문자료, 증거 입증 가능한 자료를 동원해야한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학습법을 계발하게 되는 것이다. 여섯째는 갈등(Conflict)이다. 갈등은 다시 증거를 낸 것들에 대해 사실이나 진실이 아닌 것들을 찾아내어 지적한다. 진술자가 증거로 제출한 모든 자료에 대한 오류와 이의를 지적하고 또 피상적인 부분을 지적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실천이 가능한 논리에 대하여 논쟁을 한다. 논쟁이 치열하면 할수록 하브루타는 성공적인 것이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고등적인 사고력이 계발되는데 이 단계에서도 감정 통제 능력 및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파트너에 대한 배려와 예의가 필요한 단계이다. 일곱째는 해결(Resolution)이다. 해결은 결론을 내리는 단계이다. 어느 정도로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 파트너와 함께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며 마무리한다.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실천할 사항들을 파트너에게 제시해주어야 한다. 하브루타는 주어진 본문을 논쟁하면서 적용할 것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브루타를 이행하는 원리로서 진술, 질문, 대답, 반박, 증거, 갈등, 해결의 과정인 것이다.

4. 말씀교육 하브루타 활용법

성경 하브루타는 다음 단계를 원칙으로 한다. 1단계 ‘본문정하기’ 2단계 ‘본문 읽기’ 3단계 ‘질문생성하기’ 4단계 ‘하브루타’ 5단계 ‘쉬우르(shiur)하기’ 6단계 ‘적용하기’ 7단계 ‘암송하기’이다. 성경하브루타는 질문과 토론의 주제 및 목표가 정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경의 올바른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한다. 질문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좋고, 질문과 토론 후 반드시 적용을 나누고 점검하는 것이 좋다. 성경 하브루타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가볍게 시작하여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유대인 안식일 식탁 중심의 하브루타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하브루타에 대한 부담감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하브루타에 있어서는 질문생성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되도록 질문을 많이 만들어 내게 하는 것이 좋다. 텍스트의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질문이 그치지 않도록 꼬리에 꼬리를 물도록 하는 것이 좋다.

중, 고등부를 대상으로 하는 하브루타는 ‘흥미와 관심’이라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행해야 한다. 젊은 세대의 특성에 맞게 경험을 이용한 하브루타 등 성경 정보 검색이나 그림 그리기, 인터넷 검색 등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들 세대에게 익숙해져 있는 모둠(팀)을 이용하여 함께 학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고 하브루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생소함이나 질문-대화하는 어려움으로 인한 거부감도 줄일 수 있다.

하브루타에 있어서는 질문생성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되도록 질문을 많이 만들어 내게 하는 것이 좋다. 텍스트의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질문이 그치지 않도록 꼬리에 꼬리를 물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소 엉뚱하고 주제에 맞지 않는 질문이라도 책망하지 말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좋으며, 자녀가 질문을 하면 답을 바로 알려주지 말고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것이 좋다(전성수, 2016a, 318). 성경 하브루타 질문생성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일반적 성경 하브루타 질문사례

- 시편23편에 대한 중학교 3학년 Y학생의 질문생성의 예이다.
- 질문 1.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왜 내가 부족한 게 없을까?
 - 질문 2. 왜 하필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할까?
 - 질문 3. 왜 주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실까?
 - 질문 4. 왜 주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식탁을 차려주실까?
 - 질문 5. 머리 위에 왜 기름을 발라주실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 질문 6. 5절에서 나오는 내 잔은 무엇일까?
 - 질문 7.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 질문 8. 왜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내게 새 힘을 주실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 질문 9. 왜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일까?
 - 질문 10. 주님은 나를 다른 길이 아닌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걸까?

- 질문11. 내 원수가 누구일까?
- 질문12. 왜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실까?
- 질문13. 식탁은 왜 차려주시는 것일까?
- 질문14. 여호와와 나의 목자라고 하신 것은 왜일까?
- 질문15. 다른 길도 아니고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했을까?
- 질문16.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죽는 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뜻은 무엇일까?

다음은 시편 121편에 대한 고등학교 1학년 L 학생의 질문생성의 예이다.

- 질문1. 왜 우리가 어려울 때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하나?
- 질문2. 산은 무엇을 의미하나?
- 질문3. 왜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표현했을까?
- 질문4. 하나님을 왜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이라고 표현했을까?
- 질문5. 낮에 태양이 우리를 상하게 한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질문6.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 질문7. 너의 출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 질문8.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는 것 뿐 일까?
- 질문9.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는 뜻은 죽을 때까지일까 그 이상일까?
- 질문10.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 질문11. 나의 도움은 어디서로부터 오는 것일까?
- 질문12.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질문13.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를 창조하신 분이신가?

누가복음 19:1~10에 대한 중고등부 질문생성의 예이다. 질문 카드도 활용할 수도 있다.

1. 예수님은 왜 예리고에 오셨을까? 2. 우연인가 계획적인 방문인가? 3.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 4. 삭개오는 예수님을 앞으로 달려가서 보려고 했다는 데 이것은 어떤 동작을 의

다음은 중고등부 대상 성경 하브루타 구성이다. 이것은 가정예배, 주일오후예배 가족예배 혹은 부모와 함께 드리는 특별예배 등에서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식탁의 순서를 변형하여 한국교회에 적합한 순서로 재구성하였다.

미하는 것일까? 5. 왜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어려웠을까? 6.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7. 삭개오는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을 메시아 인지 알아보았을까? 8.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8.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머물겠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즐거워했을까? 9. 왜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을까? 10.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왜 구원을 선포했을까. 이것은 삭개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11. 예수님의 삭개오를 향한 구원 선포에는 삭개오의 고백이 먼저이었을까 아니면 삭개오의 실천이 먼저였을까? 12. 왜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이라도 나누겠다고 했을까? 13. 왜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일까? 14.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시고자 함이라고 했을까? 15.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삭개오의 삶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다음은 중·고등부 대상 성경 하브루타 구성이다. 이것은 가정예배, 주일오후예배 가족예배 혹은 부모와 함께 드리는 특별예배 등에서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식탁의 순서를 변형하여 한국교회에 적합한 순서로 재구성하였다.

〈표2〉 중·고등부 대상 성경 하브루타

첫째, 찬양하기이다. 찬양은 성경 본문의 주제와 맞는 찬양으로 선곡한다. 둘째, 성령의 임재와 기쁨 부으심을 간구하고 말씀의 진의(眞意)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다. 셋째, 한주간의 삶을 나눈다. 형식적인 나눔은 피하고 진지하고도 진솔한 나눔이 되도록 한다. 넷째, 본문을 큰 소리로 읽는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거나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읽는다. 되도록이면 큰 소리로 읽는 것이 좋다. 다섯째,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의 뜻과 개념, 본문 배경 등을 팀으로 인터넷이나 책을 통하여 찾아보고 알아본다(전성수, 2016, 318). 이때 한 팀마다 검색할 내용이나 단어들을 배분하여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나 개념, 뜻을 파

악하도록 한다. 이때 인도자는 본문 중심의 메시지를 통한 질문이나 토론을 제시해주는 것도 좋다. 때로는 팀 별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은 하브루타를 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여섯째,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한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교훈 및 책망 등 하나님께 집중하여 질문을 만들어본다. 질문 카드 등을 이용하여 질문을 통한 대화와 토론을 나눈다. 팀별로 조사한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단어의 뜻, 성경 배경 등 다양한 정보를 나누며 질문과 토론을 자유롭게 한다. 일곱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한다. 성경 하브루타 중 가장 중요하고도 깊이 있는 나눔의 과정이다. 나눔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것들을 나누어본다. 이때 적용이나 실천은 구체적인 것이 좋다. 여덟째, 쉬우르 하기. 지금까지 하브루타 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기도문을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내는 것도 효과적이다. 때로는 적용과 실천을 팀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실천하는 데 자신감과 용기를 얻게 되고 확인 가능한 실천이 연결된다. 아홉 번째, 기도로 마무리하기. 하브루타는 합심하여 기도로 마치는 것이 유익하다. 하브루타 한 내용을 더욱 더 마음에 새길 수 있고 은혜 받은 감동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 하브루타는 말씀의 진의를 나누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 가장 필요하다. 참여자의 영적 성장 상태나 성숙도에 따라 변형이 가능한 학습방법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형식에 치우칠 수가 있고 인도자가 없이 모두가 자유롭게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형식이라 훈련이 필요하다. 사전에 교육을 통해 충분히 본문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숙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참여자들은 질문을 생성해야 하므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우나 훈련과 반복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모두의 신앙교육과 말씀공부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